

무주군 일자리협의회 출범

지역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고용 창출 기대

‘무주군 일자리협의회(이하 일자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일자리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무주군 지역 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체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앞으로 정기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기반으로 기관별 사업 현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고용 취약계층 지원,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농공단지 인력확보 등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상형 무주군 일자리협의회 위원장(무주군로컬JOB센터 센터장)은 “각 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협의회의 핵심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무주군 일자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일자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지역 노동시장 분석, 정책 자문, 고용과 관련한 해결 방안 모색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지역 기업과 민·관 기관의 협업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주군은 앞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안정적 고용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 현장 방문해 수매 현황 점검·애로사항 청취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산서면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현장을 방문한 농가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 수매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벼 수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훈식 군수는 “금년에는 폭염과 잦은 호우, 병해충 발생으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격려했다.

최 군수는 이날 포대에 담긴 벼 알의 상태와 매입 품질 기준 적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해 농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확기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장수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총 3,851톤으로 건조벼 1,981톤, 산물벼 1,870톤이 배정됐다. 현재 산서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2,609톤이 매입되었으며, 산서면 건조벼 1,242톤 매입이 완료되는 즉시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개로 피해벼 전담 매입을 추진해 농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3기 수료식 개최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군사관학교 3기 수료식’을 지난 21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원주 군의회 의장, 한국농수산대학과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지난 9개월간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들의 성장을 격려하며 수료를 축하했다.

행사는 우수 수료자 시상, 축하, 과



정별 소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총 90명이 정식으로 수료증을 받았다. 과정별 우수교육생 3명에게는 군수

표창이 수여돼 참석자들의 축하 박수가 이어졌으며 지난 9개월간의 성취를 돌아보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농군사관학교는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농업 전문 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 입문 △스마트팜 토마토 심화 △사과 다육·밀식 재배 등 3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올해 과정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기술을 포함한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수료식

무주군, 7세대 수료... 5세대 무주 정착 뜻 밝혀

무주군은 24일 안성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에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운영 결과보고와 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찬순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교육생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료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귀농·귀촌의 뜻을 품고 무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운 좋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무주에 정착하기로 하신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무주에서 미리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맞춤형 영농교육과



실습 등 거주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과정은 토마토 재배시설 1동(660㎡), 표고버섯 재배시설 1동(170㎡), 감자·고구마·옥수수·배추·무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공동경작지 1곳(1,235㎡)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1세대당 1동씩 제공되는 농장 내 주택에 머물며 귀농·귀촌 기초교육을 비롯해 영농 재배 이론 및 실습, 마을 탐방 등 총 63회 247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입교생은 모두 8세대로, 이중 7세대가 수료했으며 5세대가 무주 정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한 내 사용하세요”

진안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1차로 2만3,783명에게 52억4천만 원(지급률 99.27%), 2차로 2만2,883명에게 22억8천만 원(지급률 98.65%)을 지급했다. 지급된 1·2차 소비쿠폰은 오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폭넓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선불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에 안내된 고객센터 번호로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펼쳐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회장 장동엽)가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지도자 장수군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등 회원 80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총 1,500포기의 김장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부인 복영숙 여사를 비롯해 최훈식 군수 부인 송경숙 여사, 이명순 장수군새마을부녀회장, 정종근 새마을지도자장수군협의회장, 하정화 장수군새마을문고회장 등이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김장 작업을 도우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원들은 정성껏 담긴 김장 김치를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250세대에게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일자리센터 제2차 중장비 교육 운영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24일 진안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2차 중장비(굴착기·지게차) 교육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년 높은 참여율을 보여온 진안군일자리센터의 대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모집 기간 동안 많은 구직자들이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교육에는 총 12명의 진안군민이 참여해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참여자들은 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특히 중장비 면허 취득은 관련 업종으로의 취업·창업 연계는 물론, 농촌 지역 특성상 농작업 및 기초 시설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규 센터장은 “진안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일시 중지

진안군은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절기 수도당동 파와 부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12월 5일까지 공사 신청을 종료하고, 12월 12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한 신청건에 한해서만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급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사 중지 기간 전에 신청해야 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 부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